| 국어는 이감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 시즌2 제2차 예비평가 정답과 해설

이감국어교육연구소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즌2 제2차 예비평가

# 국어 영역 정답표
## ( 홀수 )형

| 공통과목 | | | | | | 선택과목 | | | | | |
|---|---|---|---|---|---|---|---|---|---|---|---|
| | | | | | | 화법과 작문 | | | 언어와 매체 | | |
| 문항 번호 | 정답 | 배점 | 문항 번호 | 정답 | 배점 | 문항 번호 | 정답 | 배점 | 문항 번호 | 정답 | 배점 |
| 1 | ② | 2 | 18 | ④ | 2 | 35 | ⑤ | 2 | 35 | ① | 3 |
| 2 | ④ | 3 | 19 | ① | 2 | 36 | ② | 3 | 36 | ⑤ | 2 |
| 3 | ① | 2 | 20 | ② | 2 | 37 | ④ | 2 | 37 | ① | 2 |
| 4 | ① | 2 | 21 | ③ | 3 | 38 | ③ | 2 | 38 | ④ | 2 |
| 5 | ③ | 2 | 22 | ④ | 2 | 39 | ③ | 2 | 39 | ② | 2 |
| 6 | ⑤ | 2 | 23 | ① | 2 | 40 | ④ | 2 | 40 | ① | 2 |
| 7 | ④ | 2 | 24 | ⑤ | 2 | 41 | ① | 2 | 41 | ⑤ | 3 |
| 8 | ② | 3 | 25 | ② | 2 | 42 | ⑤ | 2 | 42 | ⑤ | 2 |
| 9 | ⑤ | 2 | 26 | ③ | 3 | 43 | ② | 2 | 43 | ① | 2 |
| 10 | ④ | 2 | 27 | ⑤ | 2 | 44 | ② | 2 | 44 | ⑤ | 2 |
| 11 | ① | 2 | 28 | ① | 2 | 45 | ④ | 3 | 45 | ③ | 2 |
| 12 | ② | 2 | 29 | ⑤ | 2 | | | | | | |
| 13 | ③ | 3 | 30 | ③ | 3 | | | | | | |
| 14 | ⑤ | 2 | 31 | ③ | 2 | | | | | | |
| 15 | ② | 2 | 32 | ⑤ | 2 | | | | | | |
| 16 | ③ | 3 | 33 | ④ | 2 | | | | | | |
| 17 | ④ | 2 | 34 | ① | 3 | | | | | | |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즌2 제2차 예비평가 해설

## • 공통과목 •

### [1 ~ 3] 독서론

**1. [출제의도] 특정 대상의 역할을 지문에서 적절하게 확인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서양의 현대 독서법에 따르면 문단은 저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중심 화제를 담고 있는 하나의 중심 문장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문장들로 구성된다. 이처럼 문단은 중심 문장이 존재하는 단위인 것이지, 문단 자체가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가르는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서양의 현대 독서법에 따르면 문단에서 중심 문장을 찾아서 그것을 위주로 읽으면 저자의 강조점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③ 동양의 고전 독서법에 따르면 문단은 독자 스스로 설정하는 단위로, 반복하여 읽을 때 그 단위로 기능한다. ④ 동양의 고전 독서법에 따르면 독자는 글을 정밀하게 이해하기 위해 스스로 문단을 설정하게 된다. ⑤ 동양의 고전 독서법에 따르면 글을 읽을 때는 문단에 의해 글에 들어 있는 여러 내용 간의 차이를 분별하게 된다.

**2. [출제의도] 지문의 두 입장에서 <보기>에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독자가 글을 읽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글이 '하나의 덩어리'로만 보이다가 차츰 '십여 개의 부분'으로 보인다는 것은 글을 문단 구분 없이 통째로만 보다가 여러 개의 문단으로 나누어 보게 됨을 의미한다. 또한 '글자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때까지' 본다는 것은 반복해서 읽음으로써 이해의 깊이를 더하는 것으로 동양의 고전 독서법의 '틈새'를 발견하는 것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정답풀이]** 동양의 고전 독서법에 따르면 글이 '십여 개의 부분으로 보이'는 것은 독자가 읽는 과정에서 하나의 글을 십여 개의 문단으로 구분했다는 뜻이다. 동양의 고전 독서법의 '틈새'는 글을 이해하는 단서로서 각 문단의 특정 문장이나 특정 단어, 혹은 특정 조사를 말한다. 독자는 각 문단에서 그 '틈새'를 잘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 읽는 과정에서 각 문단의 '틈새'가 많아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서양의 현대 독서법에 따르면 글이 한 덩어리로 보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형식상의 문단이 필요하다. ② 서양의 현대 독서법에 따르면 설정된 각 문단의 중심 문장을 파악하는 것은 글을 효과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③ 동양의 고전 독서법에 따르면 '오랫동안 보고 또 보'게 되는 과정을 통해 한 덩어리의 글이 여러 개의 문단으로 보이게 되며, 이런 과정을 통해 문단은 읽기의 단위로 기능하게 된다. ⑤ 동양의 고전 독서법에 따르면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때까지' 읽는 것은 반복하여 읽기를 충분히 함으로써 그 문단의 '틈새'에 도달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틈새'는 문단마다 중심이 되는 문장이나 단어, 조사 따위를 의미한다.

**3.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독서법을 바탕으로 학생에게 적절하게 조언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학생은 들여쓰기를 기준으로 글을 읽는 것이 호흡 조절, 시각적 피로감 완화 등의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글자를 읽어 나갈 때의 기능적 효과에만 주목한 것이다. 하지만 지문의 독서법에 따르면 문단의 주된 기능은 글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게 하는 데 있다. 따라서 학생에게 의미 파악에 문단을 적극 활용할 것을 조언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② 학생은 들여쓰기 한 부분들을 기준으로 끊어 읽고 있으므로 조언으로 부적절하다. ③ 호흡 조절을 위해 독자가 더 많이 문단을 구분해서 읽는 것은 지문의 독서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조언으로 부적절하다. ④ 학생은 계속해서 읽기보다는 시각적 피로감을 느끼지 않도록 끊어 읽고 있으므로 조언으로 부적절하다. ⑤ 문단이 중심 화제가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은 지문의 독서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언으로 부적절하다.

### [4 ~ 9] 과학-기술 통합

**4. [출제의도] 지문의 서술 방식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는 멀미의 발생 원인을 다루고 움직임 유도 멀미일 때와 시각 유도 멀미일 때를 구분하여 멀미의 완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나) 역시 사이버 멀미의 발생 원인을 설명한 후 HMD에서 이를 완화하는 기술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특정 기술이 작동하는 세부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나)뿐이다. ③ (가)와 (나) 모두 특정 화제에 대한 상반된 견해가 제시되지도 않았고, 두 견해가 절충되고 있지도 않다. ④ (나)뿐 아니라 (가)도 멀미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정 감각, 체성 감각, 길항제, 시야각 등 주요 용어의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⑤ (가)에서는 하나의 사례를 분석하고 있지도 않고, (나)에서도 기술의 세부 방법을 설명하고 있을 뿐 여러 사례를 비교하고 있지도 않다.

**5.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세부 정보들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움직임 유도 멀미는 시선이 고정된 상태에서 몸의 움직임이 그에 상응하지 않아서 발생한다. 또한 멀미는 감각 부조화가 나타날 때 발생하는 정상적인 반응으로, 신경계 질환이 아니다. 멀미는 신경계 질환을 동반하지 않고 나타난다.

**[오답풀이]** ① 말초 신경에서 유입되는 시각, 전정 감각, 체성 감각 등은 중추 신경계에서 통합된다. ② 영상의 해상도가 낮아져서 중추 신경계에서 기대하는 정보와 영상 간의 괴리가 커지면 사이버 멀미가 더 심해질 수 있다. ④ 신경 세포의 수용체와 신경 전달 물질 간의 결합을 방해하는 길항제는 움직임 유도 멀미를 완화하는 약제로 사용된다. 이는 중추 신경계에 작용하는 약제이다. ⑤ 말초 신경에서 유입된 정보들 중 일부가 먼저 도달하면, 중추 신경계는 이에 상응하는 정보들을 기대하게 된다.

**6. [출제의도] 지문에 소개된 두 대상을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감각 부조화 이론)은 멀미의 원인을 자율 신경계에서 찾지 않는다. 중추 신경계에서의 감각 부조화에서 원인을 찾는다. 자율 신경계는 감각 부조화로 인해 증상이 발생하는 곳이다. 한편 ㉡(가설)은 신경 독성 물질이 유입될 때 나타나는 감각 부조화 시에 구토가 일어나는 것을 진화의 산물로 설명하고 있으며 그 설명의 과정에서 ㉠을 근거로 삼은 것도 아니다.

**[오답풀이]** ① ㉠은 중추 신경계에서 자세 균형을 유지하는 상황을 전제하여 멀미에 대해 설명하는 이론이다. ② 신경 독성 물질이 없더라도 감각 부조화가 있을 때 멀미가 발생한다. 그런데 ㉡은 신경 독성 물질이 몸에 유입되었을 때도 이와 동일한 경로로 감각 부조화가 나타나 그로 인해 구토가 일어남에 주목한다. ③ ㉡은 뇌간에 전정 경로와 구토를 관장하는 회로가 인접해 있다고 설명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 독성 물질이 몸에 유입되었을 때 구토를 유발하여 이 상황을 피하라는 신호를 줄 수 있다. ㉡은 이를 진화의 산물로 설명한다. ④ ㉠은 멀미의 원인을 감각 부조화로 설명한다. 감각 부조화가 나타나면 위장관계와 자율 신경계를 통해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설명의 과정에서 ㉡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은 감각 부조화가 나타났을 때 구토를 하게 되는 것이 인체에 왜 나타나게 된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가설이다.

**7. [출제의도] 지문을 참고하여 특정 기술의 효능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동적 시야각 조절 기술은 시야각을 좁히는 방법으로 사이버 멀미를 완화한다. 다만 임장감을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해 시야각을 적정 수준으로 조절한다. 그 결과 중추 신경계에서 기대하는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시각 정보의 유입량을 적절하게 줄여 어지럼이나 방향 감각 상실을 완화할 수 있게 된다.

**[오답풀이]** ① 아바타가 빠르게 움직일 때에 움직임에 시선이 집중되는 것은 동적 시야각 조절 기술과 무관하게 인체가 그러한 것이다. 즉 동적 시야각 조절 기술이 움직임에 시선을 집중시키는 것은 아니다. ② 시각 정보의 유입량을 체험자의 움직임에 상응하도록 조절하는 것이 아니다. 체험자가 아니라 아바타의 움직임에 상응하여 조절하는 것이다. ③ 시야각의 끝 단 부근에서 영상이 흐릿한 정도를 아바타의 속도에 비례하여 조절하지는 않는다. 동적 시야각 조절 기술은 시야각 자체를 조절하는 기술이다. ⑤ 시각 정보에 상응하는 진동이나 전기 자극을 제공할 수 있다면 멀미를 완화할 수 있겠으나 이를 정확히 상응하도록 제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무엇보다 이 기술은 시야각을 적절히 조절할 뿐 진동이나 전기 자극을 제공하는 것도 아니다.

**8. [출제의도] 지문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적절하게 탐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동적 시야각 조절 기술'의 적용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1초 간격의 각 시점마다 C값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현재의 시야각에 따라 변환 함수를 거쳐 얻은 C값'으로 변환된 후 시야각 조절에 실제 적용될 것이다.

**[정답풀이]** 시점 1의 C값이 4인데, 이때 시야각은 140°이다. 따라서 변환 함수에 따라 4에 3을 곱하여 얻은 12를 C값'으로 삼아 다음 시점의 시야각을 좁혀야 한다. 그 결과 140°에서 110°로 30°만큼 시야각이 줄었다. 그런데 시점 2의 C값'은 6이다. 시야각이 90° 초과 120° 이하일 때에는 'C값' = C값 × 0.5'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시야각은 C값'에 비례하여 조절된다. C값'이 12일



본 자료에는 한글과컴퓨터에서 배포하는 함초롬바탕 서체가 사용되었습니다.

때 30°만큼 줄었으므로, C값'이 6일 때에는 다음 시점의 시야각이 15°만큼 줄어들 것이다. 즉 ㉮는 100°가 아니라 95°일 것이다.

**[오답풀이]** ① C값으로 보아 시점 2는 시점 1보다 아바타가 빠르게 움직이는 상태이다. 아바타의 속도에 비례하여 시각 정보가 더 많이 유입될 것이다. 그런데 시야각이 줄어들어 시각 정보가 줄어드는 측면이 있다. 비례 관계로 보아 시야각을 줄이는 데에 C값을 사용한다면, 아바타의 속도가 빨라진 만큼 늘어난 시각 정보와 시야각이 줄어든 만큼 줄어든 시각 정보가 거의 비슷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C값에 3을 곱한 C값'이 적용되므로 시야각이 더 많이 줄어든다. 따라서 시점 2는 시점 1보다 시각 정보가 덜 유입될 것이다. ③ 시점 4의 시야각은 90°이다. 그런데 지문에 따르면 시야각은 90°보다 더 줄어들지 않는다. 따라서 ㉰의 값은 4보다 더 큰 값일 수 있다. 4보다 큰 값이어도 시점 4의 시야각은 90°일 것이기 때문이다. ④ 시점 4는 아바타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태일 수 있다. 또한 속도가 더 빨라져서 ㉱의 값이 양의 값일 수 있다. 그래도 시야각은 90° 이하로 줄지 못하므로 시점 5의 시야각이 90°인 것이다. ⑤ 시점 5는 아바타가 갑자기 정지한 상태일 수 있다. 그럴 때 시야각은 초당 3°씩 늘어날 것이므로 시점 6의 시야각이 93°일 수 있는 것이다. 아바타가 갑자기 정지한 상태가 되기 위해 속도와 각속도의 증가분, 즉 ㉲는 음의 값일 수 있다.

**9. [출제의도] 한자어의 문맥상 의미를 파악하여 고유어로 적절하게 바꿔 쓸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의 '조절되다'는 '균형에 맞게 바로잡히다. 또는 적당하게 맞추어져 나가게 되다.'라는 뜻이므로 '잘 맞물려 있는 물체가 틀어져서 맞지 아니하다.'라는 뜻인 '어긋나다'로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 [10 ~ 13] 사회

**10. [출제의도] 지문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인지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표현대리의 상황일 때는 거래 상대방이 본인에게 책임을 물어 대리의 효과를 유지할 수 있다. 따라서 표현대리의 상황에서 본인에게 책임을 묻기 힘든 이유에 대한 답을 지문에서 찾을 수는 없다.

**[오답풀이]** ① 법정 대리권과 임의 대리권은, 대리권이 수권 행위에 의해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는 점을 지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대리 행위의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리인이 대리권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또한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본인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짐을 표명해야 한다. 지문에는 이런 요건들이 언급되어 있다. ③ 협의의 무권대리는 상대방이 계약 철회권을 행사할 때 확정적으로 무효가 됨을 지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대리 행위에서 의사 표시의 결함 여부는 상황에 따라 대리인 또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정된다. 대리인이 본인의 구체적 지시에 따른 행위만을 했을 때만 본인을 기준으로 결함 여부를 판정하고 그 외의 대리 행위에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결함 여부를 판정한다는 것을 지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11. [출제의도] 지문의 세부 정보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무권대리인 경우에도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형성된 표현대리일 때는 본인이 계약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므로 대리 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될 수 있다.

**[오답풀이]** ②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갖는 친권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법정 대리권이므로 수권 행위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③ 대리인이 착오로 잘못된 의사 표시를 했을 경우에는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인이 한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본인에게 귀속될 뿐이다. ④ 본인이 대리권 수여 의사를 법률 행위의 상대방에게 표명하는 것은 대리권 발생 여부와 무관하다. 대리권 중에 법정 대리권은 수권 행위 없이 법률 규정에 의해 발생하고, 임의 대리권은 위임장 작성 등의 방법으로 대리권을 수여할 때에 발생한다. ⑤ 위임장을 교부받은 대리인은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 행위에 대한 독자적인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다.

**12. [출제의도] 지문에 언급된 특정 대상들을 적절하게 비교하여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표현대리)과 ㉡(협의의 무권대리)은 모두 무권대리에 해당한다. 무권대리는 대리 행위에서 본인 명의의 법률 행위임이 표명됐지만 실제로는 대리권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 ㉡은 모두 대리인이 대리권을 지니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과 달리 ㉠의 경우에는 거래의 상대방이 대리의 효과 발생을 주장할 수 있다. ③ 거래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과실로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 성립할 수 없다. ④ 무권 대리는 본인 명의의 법률 행위임이 표명됐지만 실제로는 대리권이 없는 것이다. ㉠, ㉡은 모두 무권대리에 해당하므로 대리 행위가 당사자인 본인 명의로 하는 것임을 표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⑤ ㉡의 상황에서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 철회권이 인정되지만, ㉠의 상황에서는 본인에게 책임을 물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가 상대방에게 인정된다.

**13. [출제의도] 지문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B의 대리인인 A와 D의 대리인인 C가 법률 행위를 하는 상황이다. A가 지닌 대리권은 담보 설정을 위한 것으로 그 범위가 한정되었으므로 매매 계약을 한 A의 행위는 수여된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A가 당사자인 본인을 위한 계약임을 표명했고 수여된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섰으므로 이 행위는 표현대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거래 상대방이 A의 대리권 없음을 알았는지 여부에 따라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달라질 것이다. 한편 C는 D의 구체적 지시에 따른 행위만을 했으므로 착오가 발생할 경우 그 결함 여부의 판정은 본인 D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답풀이]** A의 대리권이 매매 계약이 아니라 담보 설정을 위한 것임을 D가 알고 있었다면 D는 대리권이 없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선의의 상대방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D는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없다. 표현대리가 아니므로 이 대리 행위는 협의의 무권대리에 속하며, 이때 상대방에게 계약 철회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선의의 상대방일 경우로 한정되므로 이 거래에서 D는 계약 철회권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B는 자신에게 유리한 매매 계약이라면 이를 추인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오답풀이]** ① A의 행위는 수여된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A의 대리권이 매매 계약을 위한 것임을 D가 믿었다면 과실이 없는 D는 선의의 상대방에 해당한다. 이는 표현대리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므로 D는 표현대리를 주장하여 계약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② A의 대리 행위는 표현대리 중에 수여된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선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선의의 상대방인 D는 이런 점을 지적하여 B에게 계약의 효력을 유지하게 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④ A의 대리권이 담보 설정을 위한 것임을 D가 알고 있었다는 것은 매매 계약에 대한 대리권이 A에게 없음을 D가 알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D는 선의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선의의 상대방이 아닌 경우에는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거래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므로 D는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⑤ C는 당사자인 D의 구체적 지시에 따른 행위만을 했으므로 의사 표시의 결함 여부가 D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D에게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귀속된다. 따라서 착오를 일으켜 잘못된 의사표시를 하게 한 D는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14 ~ 17] 인문

**14.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특정 개념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편자 유명론에 따르면 여러 트롭들의 다발로 이해되는 것은 보편자가 아니라 개별자이다. 보편자 유명론은 보편자를 '트롭들의 닮음 집합', 즉 추상적 개별자로서의 집합으로 대체한다.

**[오답풀이]** ① 보편자는 개별자에 의해 예화될 수 있는 존재자이고 개별자는 결코 예화될 수 없는 존재자이다. ② 속성으로서의 보편자는 개별 사물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특성이다. ③ 보편자 실재론에 따르면 보편자는 '현명하다'와 같은 술어가 지칭하는 속성이며 실재하는 존재자이다. ④ 보편자 실재론에 따르면 예화될 수 있는 존재자인 보편자와 결코 예화될 수 없는 존재자인 개별자는 서로 다른 종류의 존재자이다. 참고로 보편자 유명론 역시 이 구분에는 동의하지만 보편자가 실재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15. [출제의도] 지문을 바탕으로 특정 입장의 문제점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의 입장은 색깔, 크기, 모양 등에서 어떤 하나를 정하지 않고 그저 두 개별자 간의 닮음을 고려하여 닮음 집합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속성을 정의한다. 그러나 이런 입장을 따르면 가장 많은 측면에서 닮은 개별자 2와 개별자 3으로 이루어진 닮음 집합을 '푸름'이라는 속성으로 보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푸른 개별자들인 1과 3으로 이루어진 닮음 집합을 '푸름'이라는 속성으로 보는 우리의 직관에 어긋난다.

**[오답풀이]** ① ㉠에 의하면 개별자 1과 3이 아니라 개별자 2와 3으로 이루어진 닮음 집합을 '푸름'이라는 속성으로 보아야 한다. ③ 개별자 2는 '푸름'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지 않으므로 우리의 직관에 따르면 개별자 1, 2, 3으로 이루어진



본 자료에는 한글과컴퓨터에서 배포하는 함초롬바탕 서체가 사용되었습니다.

닮음 집합은 '푸름'이라는 속성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따라서 개별자 1, 2, 3으로 이루어진 닮음 집합을 '푸름'이라는 속성으로 보지 못하게 된다는 점이 ㉠의 문제점일 수는 없다. ④ ㉠의 입장은 개별자의 색깔이라는 보편자를 가정하지 않는다. 색깔이라는 보편자를 가정하는 제안은 '색깔이라는 측면에서 서로 닮은 개별자들의 최대 집합'을 특정 색깔의 속성으로 보자는 제안으로서 ㉠과는 다른 제안이다. ⑤ ㉠에 의하면 어떤 닮음 집합을 얻으려 할 때 개별자들이 지닌 모든 측면을 고려하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색깔, 크기, 모양 등 모든 측면을 고려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한다.

**16.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이론을 바탕으로 <보기>의 이론에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보편자 실재론의 하나인 '구체적인 존재자로서의 보편자 이론'은 일반적인 보편자 실재론과 달리 보편자를 추상적 존재자가 아니라 구체적 존재자로 간주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푸름'이라는 속성은 보편자이지만, 이것은 푸른 개별자들이 있는 시공간에 분산되어 존재하는 것으로서 보편자의 부분들의 단순한 합이다.

**[정답풀이]** ㉰(구체적인 존재자로서의 보편자 이론)에서 개별자들에 보편자의 부분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한 점은 개별자와 속성 간의 연관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트롭 이론)도 개별 고유 속성인 트롭이 개별자에 내재한다고 주장하므로 개별자와 속성 간의 연관성을 인정할 것이다. 하지만 ㉮는 개별자의 시공간에 보편자가 실재한다는 ㉯의 관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 ㉮에 따르면 보편자는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닮음 집합인 개별자로 대체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답풀이]** ① 보편자가 개별자처럼 구체적인 것일 수 있다고 보는 ㉯의 관점을 보편자 유명론에 속하는 ㉮가 동의할 리는 없다. ㉮는 보편자를 트롭들의 닮음 집합이라는 추상적 개별자로 대체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에 따르면 보편자는 닮음 집합으로 대체될 뿐이지 그 자체가 닮음 집합과 동일한 것은 아니며, 닮음 집합은 추상적인 존재자라서 시공간에 존재하지도 않는다. ② ㉯는 보편자가 추상적인 것이라고 보지 않으며 오히려 보편자를 구체적인 존재자로 본다. 또한 ㉮는 개별자에 실재하는 것은 개별 고유 속성인 트롭이라고 보기 때문에, 개별자에 실재하는 것이 보편자 전체라고 주장할 리도 없다. ④ ㉮에 따르면 개별자에 내재하는 것은 보편자의 부분이 아니라 개별 고유 속성으로서의 트롭이다. 따라서 ㉮는 개별자에 보편자의 부분들이 있다는 ㉰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는 '푸름'이라는 속성을 트롭들의 닮음 집합으로 이해하므로 트롭들의 다발에 포함된 어떤 트롭으로 이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는 ㉯에 대하여 "'푸름'이라는 속성은 트롭들의 다발에 포함된 어떤 트롭에 해당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군."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것이다. ⑤ ㉯는 a가 푸를 경우에 a의 시공간에 '푸름' 전체가 아니라 그 부분만 존재한다고 보며, ㉮ 역시 시공간에 '푸름' 전체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는 보편자가 개별자에 존재하는 것들의 합이라고 보지 않으므로 ㉰에 대하여 "보편자는 개별자에 존재하는 것들의 합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군."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것이다.

**17. [출제의도] 단어의 문맥적 의미를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의 '규정'은 '내용이나 성격, 의미 따위를 밝혀 정함.'의 뜻으로 쓰였다. 반면 '필기구만을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의 '규정'은 '규칙으로 정함.'의 뜻으로 쓰였으므로 문맥적 의미가 같지 않다.

## [18 ~ 21] 현대소설

→ **연계 지문 : 김원일, 「도요새에 관한 명상」 (수능특강 185쪽)**

**18.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윤 소령은 병국이 군 통제 구역 출입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면서도 무모한 행동을 했다고 말하며, 병국의 행동에 대해 용서를 구하면서 단단히 주의를 시키겠다는 '나'에게, 무장 공비가 저지른 만행을 예로 들면서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한다. 그 후 '나'가 억류된 병국을 만나 그를 나무라자, 윤 소령은 '고정하십시오. 자제분 의도나 진심은 충분히 파악했으니깐요.'라고 말한다. 이로 보아 윤 소령은 통제 구역을 침범한 병국의 의도를 파악했음에도 그를 억류한 채 '나'를 불러 경각심을 일깨웠다고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③ 노무과장은 '나'에게 '지난번 반상회' 때 공단에서 돌린 공문을 언급하면서, 공단 측에서도 공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환기하였다. 노무과장이 공문을 보여 준 것도 아니고, 공단 측에서 공해 문제에 관심을 가질 여지가 없음을 강조한 것도 아니다. ⑤ '나'가 별안간 방문한 군인들을 보고 노무과장 일행의 모습을 떠올린 것은 맞지만, '나'가 군인들에게 불쾌감을 드러내는 모습은 지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19. [출제의도] 작품의 특정 부분의 서술상 특징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A]에서는 새들이 집단으로 죽은 사건을 조사하던 중 군 통제 구역에 들어갔다가 군인들에 의해 억류되었던 병국의 외양이, '땟국 앉은 꾀죄죄한' '중병 환자'의 몰골로 그려지고 있다. 또한 그의 옷도 '펄투성이여서' 마치 '하수도 공사를 하다 나온 듯'하다고 서술되어 있다. 이러한 외양 묘사를 통해, 씻지도 못하고 옷을 갈아입지도 못한 채 군 부대에 억류되어 있었던 병국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풀이]** ③ 다른 곳에 있던 병국이 '파견 대장실'로 들어왔으므로 병국에 대해서는 공간의 이동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지만, 이전에 병국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나 현재 병국의 심리가 어떠한지에 대한 정보는 [A]에 전혀 주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인물의 내면 변화를 보여 준다고 할 수는 없다. ⑤ [A]가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 '나'에 의해 서술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나'는 자신의 눈에 비친 아들 병국의 행색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지 병국에 대해 관념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는 않다.

**20. [출제의도] 구절의 문맥적 의미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에서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겠다'라는 말은 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병국의 행위가 '조국 근대화'라는 대업을 망칠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런 병국의 행위를 '미친놈 짓거리'라거나 '뿌릴 뽑아야' 한다고 거칠게 표현한 것을 보면, 이는 위협적인 어투의 발언을 통해 '나'를 협박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병국의 행위가 초래하게 될 위험성을 호소하여 상대, 즉 '나'의 동의(병국이 다시는 공해 문제와 관련하여 진정서 제출 등의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는 없다.

**[오답풀이]** ① 노무과장은 ㉠ 뒤에 이어지는 말에서 병국이 '풍천화학'에도 진정서를 냈다는 점을 언급한다. 이로 보아 ㉠은 병국의 행위가 반복되었음을 드러내면서, '상습범'이라는 말을 통해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상대에게 알리려는 속내를 담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③ ㉢은 병국의 소재를 찾으려는 노무과장 일행이 기다리는 상황에서, 병국이 집에 돌아오지 않은 것을 두고 안도하는 '나'의 마음을 서술한 것이다. '용케'라는 표현에서 안도의 마음을 읽어 낼 수 있다. 따라서 ㉢은 노무과장 일행이 바랐던 바대로 상황이 전개되지 않은 것에 다행스러워하는 '나'의 심리를 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④ ㉣은 병국의 행동이 무모했음을 강조하는 윤 소령의 발언에 대해 '나'가 동의를 나타낸 말인데, '나'가 그에게 병국을 용서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은 윤 소령의 의견에 동의를 표하여 병국의 행위에 대해 선처를 이끌어 내려는 '나'의 마음을 담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⑤ '나'는 앞서 윤 소령에게, '어떻게 한 번 용서해 주십시오. 아비 된 제가 주의를 단단히 시키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나'가 노기를 띠고 아들에게 소리치며 한 발언의 내용은 윤 소령이 '나'에게 지적한 내용과 비슷하다. 이를 고려할 때, ㉤은 자신이 병국의 행위를 강력히 책망하고 있음을 제삼자인 윤 소령에게 환기하여 병국에 대한 선처를 이끌어 내려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1.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병국이 낸 진정서에 대해 노무과장이 '진정도 진정 나름'이라는 반응을 보인 것은 맞지만, 병국이 낸 진정서의 내용이 '공해 검증 기구를 사들이'라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공해 검증 기구'는 B공단에서 돌린 공문 속에 '공단 측에서도 공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공해 검증 기구를 사들이려 예산을 책정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는 노무과장의 말에서 언급된 것이다.) '간혹 기계 고장으로 가스가 새는 수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걸 고의로 몰아붙이는 이런 진정에는 우리가 오히려 명예 훼손으로 자제분을 고발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해요.'라는 노무과장의 말을 통해, 병국이 낸 진정서는 공단 측이 유해한 가스를 배출하고 있음을 문제 삼은 내용일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② 노무과장 일행은 '조국 근대화'의 '성과'를 들먹이며, 병국이 진정서를 낸 행위를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겠다는 미친놈 짓거리'라고 표현한다. 이는 경제 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워 공해 배출에 대한 병국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억누르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공비'를 언급하며 '국제 유수의 공업 단지 보안과 경비'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국민 복리와 제반 산업의 성장이란 것도 안보 확립 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



본 자료에는 한글과컴퓨터에서 배포하는 함초롬바탕 서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라는 윤 소령의 말에는 경제 논리와 안보 논리가 결합되어 있다. <보기>를 참고하면 이는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22 ~ 27] 고전시가 – 수필 통합

→ **연계 지문 : 정극인, 「상춘곡」 (수능특강 268쪽)**
→ **권호문, 「한거십팔곡」 | 장현광, 「계상설」**

**22. [출제의도] 시구의 문맥적 의미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한중진미(= 한가한 가운데 깃드는 참다운 맛.)'를 알 사람이 없어서 혼자서 즐기고 있다는 말이나 '청풍명월'만이 자신의 벗이라는 말은,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지내는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는 표현이지 외로운 감정을 느낀다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작품의 문맥을 볼 때 '산일이 적적한데'의 '적적' 역시 고요하고 한가하다는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이지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③ 화자는 '수풀에 우는 새'가 '춘기(= 봄의 정취. 또는 봄의 기운.)'에 겨워 '소리'를 내고 있다고 하면서 그 '흥'이 자신과 다르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봄을 맞은 자신의 감흥을 새소리를 통해 감각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⑤ 화자는 '단표누항(= 누항에서 먹는 한 그릇의 밥과 한 바가지의 물이라는 뜻으로, 선비의 청빈한 생활을 이르는 말.)에 허튼 생각 아니 하네'라는 말로, 자신이 '허튼 생각', 즉 세상의 '공명'과 '부귀' 같은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청빈한 생활을 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23. [출제의도] 작품의 표현상 특징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제8수>의 초장은 대구를 활용하고 있으나 상황이나 선택에 따라 서로 다른 일을 한다는 뜻을 나타낼 뿐, 내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이와 달리 <제4수>의 초장과 중장은 대구를 이루면서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가 하는 내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풀이]** ④ <제19수>의 중장에 설의적 표현이 쓰였지만 <제17수>도 중장과 종장에서 설의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24. [출제의도] 시적 공간을 중심으로 두 작품을 적절하게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A]의 화자는 '구름 속'에서 '봄빛' 넘치는 들을 바라보며 자연이 주는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 [B]의 화자는 '강변'에서 흐르는 물을 보며 '진세 일념(세속의 일에 집착하던 생각)'이 '얼음 녹듯 한다'라는 말로써 '진세 일념'에서 벗어나는 기분을 나타내고 있다.

**[오답풀이]** ① [A]의 화자가 '구름 속'에서 진지한 성찰을 하고 있다거나 [B]의 화자가 '강변'에서 삶에 대한 회의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B]의 종장에서 진세(세속)'의 일에 연연하던 '십 년 전'의 고민이 '얼음 녹듯' 사라진다고 한 것을 생각할 때, 세월이 물처럼 흐르니 '백세(인간의 한평생)'라 해도 '몇 근'이나 되겠느냐는 중장은 인생에 대한 회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한평생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높이 살 만한 공적을 이루려고 안달복달할 이유가 없다는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는 편이 적절하다. ④ [A]의 화자는 '구름 속'에서 주변을 내려다보며 '엊그제'까지 (겨울이라) 거무죽죽하게만 보이던 들판이 푸른 풀과 울긋불긋한 꽃들로 가득한 '봄빛'으로 바뀌었다고 감탄하고 있으므로, 화자가 '엊그제'와 현재 사이의 변화를 절감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그러나 [B]의 화자는 '강변'에서 흐르는 물을 보며 '십 년 전'에 품고 있던 '진세 일념'이 '얼음 녹듯 한다'라는 말로 '십 년 전'과 현재 사이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화자가 '십 년 전'과 현재가 다르지 않음을 깨닫는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25. [출제의도] 시구의 문맥적 의미와 작품의 시상 전개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은 '강호'에 은거하며 자연을 즐기는 삶을 택해야 하는가, 관직에 나아가 '성주'를 섬기는 삶을 택해야 하는가 하는 고민을 나타내고 있다. ㉡은 '성현'이 했던 것처럼 '도'를 추구하기만 한다면 거하는 곳이 '강호'이든 세속이든 괜찮다는 뜻이므로, ㉠에 나타난 고민이 해소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오답풀이]** ① ㉠에 막막한 심정이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에 자포자기하는 태도가 나타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6.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성현의 가신 길이 만고에 한가지'라는 말은, 옛 '성현'이 은거할 때에나 세상에 나아가 있을 때에나 늘 같은 '도'를 추구했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는 '성현'처럼 '도'를 추구하기만 한다면 거하는 곳이 '강호'이든 세속이든 괜찮다는 뜻이므로, 화자가 세속의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학문과 수양에만 힘써야 한다는 가르침을 나타내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명철'한 '군자'는 '출하면 치군택민'하는 삶을, '처하면 조월 경운' 하는 삶을 즐긴다고 한 것은 어느 쪽이든 자신이 발붙인 곳에 맞는 일을 하면 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담고 있다.

**27. [출제의도] 중심 소재에 대한 글쓴이의 태도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글쓴이는 '무릇 만물이 본래 발붙인 곳이 없을 수 없으나, 또한 발붙인 땅에 집착하여 얽매이면 안 된다.'라고 했고, 스스로를 '여옹(나그네 노인)'이라 하고 스스로에게 '여헌('나그네의 집'이라는 뜻으로, 어떤 집도 언젠가는 떠나야 할 곳일 뿐이라는 생각을 담고 있다.)'이라는 호를 붙여 자신의 삶의 자세를 나타내었으며, '이제 여헌이 이곳을 집으로 삼은 지 이미 삼 년이 되었으니, 장차 다른 곳으로 옮겨 갈 것이다.'라는 말로 '계상'이 있는 곳에도 집착할 생각이 없음을 나타냈다.

**[오답풀이]** ③ '이 평상은 애초에 크게 마음 쓰지 않고 즉흥적으로 만들어서 소박하고 수수하며 깎고 다듬지 않았으니 나와 어울린다'는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늘 움직이는 물에 임해 있어 주야로 그 물이 평상 밑을 그치지 않고 흘러가니, 이야말로 여옹이 좋아하는 바이다'라는 구절이나 '오늘날 계상을 만든 것 또한 그것이 한곳에 발붙이고 있지 않음을 좋아해서이다'라는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계상'의 이와 같은 특징은 [C]에서 말한 '발붙인 땅에 집착하여 얽매이면 안 된다'는 삶의 자세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다.

## [28 ~ 30] 현대시

→ **연계 지문 :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수능특강 79쪽)**
→ **김춘수, 「분수」**

**28. [출제의도] 두 작품의 공통점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에서는 부분적으로 2행('나는 ~ 있을 테요')과 4행('나는 ~ 잠길 테요'), 전체적으로는 1, 2행('모란이 ~ 있을 테요')과 11, 12행('모란이 ~ 찬란한 슬픔의 봄을')에서 유사한 시구가 변주되고 있다. (나)에서는 제1연의 '왜 이렇게 ~ 하는가'와 제2연의 '왜 너는 이렇게 ~ 하는가' 등에서 유사한 시구의 변주를 확인할 수 있다. (가), (나) 모두 이러한 변주를 통해 시상을 심화시킴으로써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풀이]** ③ (가)는 마지막 행에서 도치된 문장을 사용함으로써 여운을 남기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나)의 끝부분에는 도치문이 쓰이지 않았다. ⑤ (나)는 분수의 움직임을 좇는 화자의 시선을 따라 시상을 짜임새 있게 전개하고 있으나, (가)는 화자가 '모란'을 직접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지 않는다.

**29. [출제의도] 작품 속 시어의 기능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왜')은 대상(분수)을 바라보는 화자의 안타까운 심정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것은 대상이 보여주는 다툼과 분열 때문이 아니다. 화자는 더 높이 솟구쳐 오르고 싶지만 결국은 '갈라져서 떨어'지고 마는 분수의 숙명적 한계를 보고 안타까워하는 것이다.

**[오답풀이]** ① 화자는 실제의 봄이 와도 '모란'이 필 때까지는 '아직(㉠)' '나의 봄'은 오지 않았다고 하고, 실제의 봄이 가거나 가지 않거나 간에 '모란'이 떨어진 시점에는 '비로소(㉢)' 자신의 봄이 끝난 '설움'에 잠길 것이라고 하였다. ② '뚝뚝(㉡)'은 '모란'이 지는 소리나 모양을, '산산이(㉣)'는 분수의 물이 떨어져 흩어지는 모양을 나타내기 위한 시어이다. 이 감각적인 시어들은 모란의 낙화와 분수의 추락에서 화자가 느끼는 충격을 선명하게 부각해 준다. ③ '그(㉥)'는 모란이 떨어진 과거의 어느 때인 '하루 무덥던 날'을 강조해 줌으로써 그 시점에 주목하도록 해 주고, '이(㉦)'는 주로 화자 가까이 있는 대상을 가리키는 말로써, 분수가 현재 화자 앞에서 부서지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강화해 준다. ④ '삼백예순날'과 '섭섭해 우옵네다'를 통해 화자가 '모란'을 잃고 오랫동안 슬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하냥(㉧)'이라는 부사어를 통해 더욱 부각된다. (참고로 '하냥'은 '늘'이라는 뜻을 가진 방언이다.)

**30.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참고하여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에서 '모란'이 지면 '삼백예순날'이 남았음에도 화자는 '내 한 해'가 끝났다고 말한다. 그리고 다시 '모란'이 필 때까지 기다림을 지속하겠다고 다짐한다. 여기에는 '모란'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화자의 태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나)에서 '모든 것을 바치'는 주체는 화자가 아닌 분수이다. 분수가 솟구치는 모습을 이상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모습이라 화자가 표현한 것이지, 화자가 분수를 위해 그런 태도를



본 자료에는 한글과컴퓨터에서 배포하는 함초롬바탕 서체가 사용되었습니다.

가졌다는 것이 아니다.

**[오답풀이]** ② 모란은 잠깐 피었다 지고 분수는 솟구쳤다 떨어지기를 거듭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와 (나)에서 사용된 상승과 하강의 움직임을 드러낸 대조적인 표현('뻗쳐오르던'과 '무너졌느니', '떨어져서'와 '솟아야만')에서는 시인이 지향하는 가치가 오래 지속되거나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⑤ (가)의 '찬란한 슬픔'은 모란이 지는 데서 비롯된 슬픔과 모란이 다시 피어날 것임을 아는 데서 오는 기쁨을 결합한 표현이다. (나)에서 '선연한 무지개'는 추락했다 다시 솟는 분수를 빗댄 표현이다. <보기>를 참고할 때, 이 두 표현 모두 시련에도 불구하고 지향하는 가치를 추구하려는 의지와 그 아름다움을 환기하는 표현이라 볼 수 있다.

## [31 ~ 34] 고전소설

**→ 연계 지문: 작자 미상, 「옥단춘전」 (수능특강 333쪽)**

**31.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혈룡이 경성에 돌아가기를 꺼린 것은 모친이 자신을 질책할까 봐 주저해서가 아니다. 이혈룡은 '이 모양 이 태도', 즉 평양에 가서 재물을 얻어 가겠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상태로는 모친 뵐 면목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집을 떠나기 전 이혈룡이 모친에게 '곁에서 모시지 못하옴을 용서하옵소서'라고 하기는 했지만, 이에 대한 모친의 질책을 예상하는 대목은 찾을 수 없다.

**[오답풀이]** ② 옥단춘이 '하릴없어', 즉 어쩔 수 없이 김 감사의 명령을 따르게 되었으나 적당히 비위만 맞춰 주며 지냈다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옥단춘이 이혈룡에게 '부탁할 말씀'이 있다며 '이 부자 댁'에 가라고 한 것은, 이혈룡으로 하여금 옥단춘이 마련해 준 집에 가도록 한 것이다. ⑤ 이혈룡은 이 부자 집이 누구 집인 줄도 모르고 들어갔다가 하인들로부터 이 집이 '서방님 댁', 즉 자신의 집이라는 말을 듣고 놀랐지만, 모친의 말을 듣고 나서 모든 것이 옥단춘이 한 일('소위')임을 알게 되었다.

**32. [출제의도] 발화의 의미를 문맥적으로 대응시켜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A]는 이혈룡이 모친에게 한 말이다. 이혈룡은 과거에 친구로서 '태산같이 맺은 언약'이 있는 김진희가 평안 감사가 됐다고 하니 찾아가면 '괄시 아니 할 것이요 살려 줄 것이'라고 했다. 김진희를 찾아가면 재물을 좀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 것이다. 이혈룡의 모친이 한 말인 [B]를 볼 때, 이혈룡의 모친은 아들이 평양으로 떠난 후 가족에게 보내온 재물을 평안 감사가 보낸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옥단춘이 한 일인 줄 전혀 모른 채 그저 아들이 기대한 대로 되었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오답풀이]** ③ [A]에서 이혈룡은 재상가 자손으로서 차마 구걸하는 차림으로 갈 수 없다고 했는데, 이를 부담감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B]에서 가문에 대한 모친의 염려는 나타나지 않는다. '충신지자'라는 말은 이혈룡이 충신의 아들답게 효성스럽다는 칭찬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 쓰인 것이다.

**33. [출제의도] 특정 부분의 표현상 특징과 의미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에서 '당하다'는 '일이나 책임 따위를 능히 해내거나 감당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설의적 표현을 통해 '머리를 베어서 판다 하더라도 생계를 감당할 수 없었다.'라는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 일시적으로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아 끼니를 연명했더라도 머리카락이 무한정 자라는 것도 아니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오답풀이]** ① '볼만하다'에서 서술자의 직접 개입을 찾을 수 있으나, 이는 다른 기생들의 '시기하고 아양 피는 거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말이다. ② 가정의 방식을 사용해 옥단춘이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상황을 설정한 것은 맞지만, 여기서 '해를 입게 될' 사람으로 언급된 것은 옥단춘이 아니라 그를 부르러 온 호장과 수로(하인 중의 우두머리) 등이다. ③ 옥단춘을 두고 '기롱 수작'을 부리는 김 감사의 모습을 볼 때, 인물의 위엄 있는 모습에 주목하도록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이는 김 감사의 부정적 행동에 주목하도록 서술자가 독자의 주의를 환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⑤ '이때에'를 통해 장면 전환이 일어난 것은 맞지만, 이혈룡이 경성에 올라간 것은 시간 순서상 앞 장면의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다.

**34.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백성 다스리기를 게을리하고 풍악과 주색에 빠진 김진희의 모습은 탐욕스러운 양반 관리의 면모를 잘 나타내지만, 이혈룡 모친이 노비 전답을 많이 샀다고 기뻐하는 것은 옥단춘의 경제적 지원이 몰락 양반이었던 이혈룡 가족에게 큰 도움이 되었음을 보여 주는 대목이지 양반의 탐욕을 드러내는 부분이 아니다.

**[오답풀이]** ④ 이혈룡이 가족을 다시 만날 면목이 없다며 경성 가기를 주저하자, 옥단춘은 과거에 급제하면 입신양명하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상심 말라고 정서적 지지와 위로를 건네고 있다.

# • 선택과목 - 화법과 작문 •

## [35 ~ 37] 화법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113쪽**

**35. [출제의도] 연설자의 말하기 방법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연설자가 통념을 언급한 뒤 반론을 제기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으며, 유리병을 반환하여 재사용하자는 주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지도 않다.

**[오답풀이]** ① '우리나라의 병당 재사용 횟수'를 독일, 핀란드의 사례와 비교하여 문제 상황을 인식시키고 있다. ② 연설자는 연설의 전반에서 경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 ③ '환경부의 자료에 따르면'이라고 근거로 사용된 자료의 출처를 밝혀 주장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있다. ④ 연설자는 도입부에서 '여러분들 모두 병음료수를 구매한 적이 있으시죠?'라고 묻고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이는 청중에게 관련된 경험을 환기하여 연설 주제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내는 말하기 방법이라 볼 수 있다.

**36. [출제의도] 연설을 홍보하기 위해 작성된 포스터의 내용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연설자는 재사용 유리병에 대해 소개할 때, '분리수거함에 배출하는 대신 깨지지 않게 모아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유리병 재사용이 '소비자가 분리수거함에 배출한 유리병을 기업이 재사용하는 것'이라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37. [출제의도] 연설의 특정 부분의 발화 의도에 따라 친구들을 설득할 말을 적절하게 추론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연설자는 ㉠에서 '여러 번 재사용될 수 있는 유리병이 제자리를 찾지 못한 채 버려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에 주목하여 친구들을 설득할 말로는 유리병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즉 반환되어 재사용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지적하고 재사용 가능한 유리병을 찾아 반환하도록 하자고 말하는 ④가 적절하다.

## [38 ~ 42] 작문－화법 통합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81쪽**

**38. [출제의도] 건의문의 작문 맥락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는 건의문으로서 대출 도서의 반납 연체라는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도서관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도서부 위원들을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예상 독자는 학생회 도서부 위원이다. 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서부에서 반납 연체를 방지하는 추가 방안을 도입해 줄 것을 글의 주제로 삼았다. ⑤ 도서관 누리집 게시판은 사회적인 성격이 강한 매체이다.

**39. [출제의도] 건의문의 구성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의 4문단은 도서 반납의 연체 방지 방안으로 연체료 부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기준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40. [출제의도] 지문의 내용과 사회자의 역할을 적절하게 연결하여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에서 '학생 1'이 안내 메시지의 발송 방안이 지닌 한계에 대해 견해를 묻고 있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41. [출제의도] 특정 발화의 말하기 방식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은 '대출을 제재하면 그런 단점이 있기는 해.'라고 직전의 '학생 2'의 의견 일부를 인정하면서 '그렇지만 대출을 제재하는 대신 ~ 할 일이 많이 늘어나.'라고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고 있다.

**[오답풀이]** ④, ⑤ ㉡은 '연체를 방지할 수 있다면 ~ 하지 않을까?'라고 직전의 '학생 3'의 의견에 대해 반문한 후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 활동 취지잖아.'라고 반문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42. [출제의도] 토의의 내용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친구들이 아니라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지 않는 친구들이 반납 기일을 지키도록 하는 데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이 대출 제재의 단점으로 언급되었다.



본 자료에는 한글과컴퓨터에서 배포하는 함초롬바탕 서체가 사용되었습니다.

### [43 ~ 45] 작문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20쪽

**43. [출제의도] 초고를 작성하기 전에 학생이 떠올린 생각이 초고에 반영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초고에서 단계별 양상을 제시해 번아웃 증후군의 진행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둘째 문단이 번아웃 증후군의 증상에 관한 문단이기는 하나 번아웃 증후군의 단계별 양상을 제시해 진행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44. [출제의도] 교지 편집부 담당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초고의 마지막 문장을 작성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마지막 문단에는 자신이 번아웃 증후군을 겪고 있음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많다는 내용과 함께 그 이유가 제시되어 있다. 그 이유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지 않기 때문이다. 담당 선생님의 조언은 청소년인 예상 독자들에게 평소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청유하는 문장으로 마무리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평소 자신이 ~ 돌아보는 습관'을 언급하며 '-자'라는 청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종결 어미를 사용한 ②가 가장 적절하다.

**45. [출제의도]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의 적절한 활용 방안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ㄷ의 자료는 우리 학교 학생들의 번아웃 증후군 자가 진단 결과이다. 제시된 표와 글의 내용에 따르면 자가 진단에 참여한 학생들 중 22명이 번아웃 증후군 상태이며 그중 3명만이 자신의 상태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청소년 중 번아웃 증후군을 겪는 사례가 있음을 알려 주긴 하지만 그 수가 근래 들어 늘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없다.

**[오답풀이]** ① ㄱ의 자료에 따르면 번아웃 증후군은 감기, 몸살, 두통과 같이 몸이 아픈 신체적 증상도 유발한다. 이를 번아웃 증후군의 증상을 제시하는 2문단에 보충할 수 있다. ③ 3문단에 제시된 번아웃 증후군 완화 방법 중 '평소의 목표보다 작은 목표를 설정하여 이를 달성해 나가는 것'이 도움이 되는 이유를 ㄴ을 활용하여 보충할 수 있다. ⑤ ㄷ의 결과에 따르면 번아웃 증후군을 겪고 있는 우리 학교 학생 중 이를 인지하고 있는 학생은 약 14%에 불과했다. 즉 인지하지 못하는 학생이 86%로 많다는 의미이다.

## • 선택과목 - 언어와 매체 •

### [35 ~ 39] 언어

**35. [출제의도] 용언의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흐르다'가 어미 '-어'와 결합하여 '흘러'로 활용하는 것은 어간 끝음절 'ㄹ'가 'ㄹㄹ'로 바뀌어 활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어간의 형태만 바뀌는 불규칙 활용이다.

**[오답풀이]** ② 지문에 따르면, 어간의 끝이 'ㄹ'인 용언은 '-ㄴ', '-네', '-오', '-ㅂ시다'와 같은 어미와 결합할 때 어간의 'ㄹ'이 탈락한다. ④ '노랗-'이 '-아'와 결합하여 '노래'로 활용하는 것은, 어간의 일부인 'ㅎ'이 없어지고 어미의 형태도 변하는 불규칙 활용에 해당한다.

**36. [출제의도] 활용 양상이 서로 다른 동음이의 관계의 단어들을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에서 위 문장의 '곱다'는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얼어서 감각이 없고 놀리기가 어렵다.'의 의미로, '곱아, 곱아서'와 같이 활용한다. 아래 문장의 '곱다'는 '상냥하고 순하다.'의 의미로, '고와, 고와서'와 같이 활용한다. ⓔ에서 위 문장의 '묻다'는 '가루, 풀, 물 따위가 그보다 큰 다른 물체에 들러붙거나 흔적이 남게 되다.'의 의미로, '묻어, 묻어서'와 같이 활용한다. 아래 문장의 '묻다'는 '무엇을 밝히거나 알아내기 위하여 상대편의 대답이나 설명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말하다.'의 의미로, '물어, 물어서'와 같이 활용한다.

**[오답풀이]** ① ⓐ에 쓰인 '따르다'는 동음이의 관계에 있지만 두 단어 모두 '따라, 따라서'와 같이 규칙 활용한다. ⓑ에 쓰인 '뜨다'는 동음이의 관계에 있지만 두 단어 모두 '떠, 떠서'와 같이 규칙 활용한다. ② ⓒ에 쓰인 '낫다'는 동음이의 관계에 있지만 두 단어 모두 '나아, 나아서'와 같이 불규칙 활용한다.

**37. [출제의도] 보조 용언 구성 '-고 있다'의 쓰임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도 그 일은 알고 있다.'는 내가 그 일을 알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의미로 해석된다.

**[오답풀이]** ⑤ '선생님이 빨간 목도리를 매고 있다.'는 '선생님이 빨간 목도리를 매고 있는 중이다.'와 '선생님이 빨간 목도리를 맨 상태이다.' 두 가지 의미로 모두 해석된다.

**38. [출제의도] 음운의 개수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반입량'은 음운 변동 전 음운의 개수가 8개였다. 교체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 '[바님냥]' 역시 음운의 개수는 8개이다. '삯일꾼'은 음운 변동 전 음운의 개수가 9개였다. 탈락과 첨가, 교체의 음운 변동이 일어난 '[상닐꾼]' 역시 음운의 개수는 9개이다.

**[오답풀이]** ① '눅눅히[눙누키]'는 음운 변동의 결과 음운의 개수가 8개에서 7개로 줄어들었다. '닭갈비[닥깔비]'는 음운 변동의 결과 음운의 개수가 9개에서 8개로 줄어들었다. ⑤ '석남잎[성남닙]'은 음운 변동의 결과 음운의 개수가 8개에서 9개로 늘어났다.

**39.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관형격 조사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선행 체언 '나모(나무)'는 무정 명사이므로 ㉡에는 관형격 조사 'ㅅ'이 쓰였을 것이다.

**[오답풀이]** ① '거붑(거북)'은 유정 명사이다. 모음 조화에 따라 ㉠에는 '의'가 쓰였을 것이다. ③ '나라'는 존칭의 대상이 아닌 무정 명사이다. ④ '사ᄉᆞᆷ(사슴)'은 유정 명사이다. 모음 조화에 따라 ㉣에는 '이'가 쓰였을 것이다. ⑤ '부텨(부처)'는 존칭의 대상이므로 ㉢에는 'ㅅ'이 쓰였을 것이다.

### [40 ~ 42] 매체

**40. [출제의도] 인터넷 신문의 특성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인터넷 기사의 상단 우측에 기자의 전자 우편 주소가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수용자는 전자 우편을 이용하여 기사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② 기사에 대한 수용자들의 선호도가 높다고 해서 기사에서 제공된 정보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③ 기사를 누리 소통망에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사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일 뿐이지 기사의 본문을 직접 수정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④ 기사가 입력된 시각과 수정된 시각을 통해서는 기사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수용자들이 기사를 열람한 시각을 확인할 수는 없다.

**41. [출제의도] 다양한 매체 언어의 활용 양상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못난이 농산물의 발생과 관련한 문제를 부각하기 위해 '등급 외' 농산물의 발생 규모를 보여 주는 그래프를 이용할 수는 있지만, 소비자 만족도에 대한 시각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⑤의 서술은 적절하지 않다. 또 엄밀히 말해, 제시된 인터넷 신문에서는 못난이 농산물이 상당히 발생한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을 뿐 발생이 증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42. [출제의도] 매체 자료에 반영된 생산 계획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학생의 메모를 보면 다섯째 장면에서는 직거래 장터의 개장으로 밝아진 생산자, 소비자, 환경의 모습이 삼분할된 화면에 각각 제시되어야 한다. 하지만 영상 제작 계획에는 생산자, 소비자, 환경 각각이 차례로 화면에 채워지며 마지막에 함께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삼분할된 화면에 각각 제시한다는 메모의 내용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 [43 ~ 45] 매체 – 언어 통합

**43. [출제의도] 매체 자료의 정보 구성 방식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에서 '진행자'가 '오늘 소개해 드릴 전시회는 현재 ○○ 박물관에서 진행 중인 기획 전시인 '그때, 우리 가족의 라디오'입니다.'라고 말한 것에서 현재 진행 중인 전시회에 대한 정보를 알려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② (가)에서 방송에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을 청취자에게 안내하고 있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③ 누리 소통망의 댓글을 통해 정보 제공자와 수용자는 쌍방향적으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의사소통할 수 있지만, (나)의 댓글에서 수용자인 '호진'이 전시회에 다녀온 경험을 공유하고 있지는 않다.

**44. [출제의도] 매체에 나타난 언어적 표현에 대해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에서 종결 어미 '-은데'는 감탄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 쓰이고 있다.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답으로 요구하는 설명 의문문을 만드는 종결 어미의 기능을 하고 있지 않다.

**45. [출제의도] 매체 자료에 반영된 제작 계획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전체 공개'된 누리 소통망(SNS)의 게시물인 (나)보다는 특정 고등학교 누리집에 게시된 글인 '자료'가 한정된 정보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매체 자료에 가깝다. 또한, (나)에서 정보 수용자의 관심사를 고려해 전시회를 추천하고 있지도 않다.



본 자료에는 한글과컴퓨터에서 배포하는 함초롬바탕 서체가 사용되었습니다.